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치유한 하늘의 신령한 복음

-복음으로 오는 에베소서-
창세기 6:1-8, 에베소서 2:1-10

정운돈 목사님

서론 : 에베소서의 기록 배경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 개척된 교회를 향해 보낸 서신이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너무 중요한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전도 사역의 결정판이기 때문이다.

(1) 바울의 사역을 잠깐 되돌아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 차례 전도여행을 떠난다.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을 지나고, 루스드라, 이코니온 등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역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된다. 순회전도를 체험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한 후,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다. 바울은 자기 마음에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핵심 지역이 에베소였다. 그 지역이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지역이면서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실패를 경험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혼자 내려왔다. 팀 형성을 안 한 것이다. 유상이 많은 지역이니까, 영적인 의분을 일으켜서 사역을 한 결과 실수를 한 것이다. 아테네 지역은 철학, 지식이 뛰어난데, 바울이 자기도 이 부분에서 뛰어나지 않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실패한다. 여기에서 바울이 몇 가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게 된다. 아테네에서 철학, 지식을 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겠다고 결단한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제자를 찾는다.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른 지역을 거처하면서 충분히 준비가 되게 하셨다. 전도 시스템을 이해하게 하셨다. 바울은 전도에 대한 깨달음, 노하우를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달한다. 그러면서 이들을 비롯해서 팀을 형성해서 에베소에 떨어뜨려놓고 자신은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했더니 이 팀들이 바울이 없는 중에도 아볼로 같은 제자를 찾아서 고린도도 보내고, 에베소에서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이다. 바울이 와서 보니까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 제자들을 모아서 2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바울은 그들을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 순회하여 로마 복음화할 준비를 한 후, 다시 들어서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다 배웠던 현장을 에베소였던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 이것저것 더 필요한 것이 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를 비롯한 육중 서신이다.

(2) 에베소서의 특징을 보면, 앞부분은 굉장히 깊은 신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전도자의 삶을 다루고 있다. 한 목사님이 이 짧은 에베소서를 1년 동안이나 설교한 것을 보았다. 사실 에베소서도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라고 바울이 쓴 책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교에서 4년, 7년 쯤 배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론 같은, 오래도록 연구해야 할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있는 것이다. 목상할 수 있는 깊은 내용이 많다.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낼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했으므로 신학적 내용이 정리되어야 했던 것이다. 에베소에서 복음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면 로마복음화와 세계복음화도 가능할 것이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복음운동이 실패한다면 바울의 사역이 불완전했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은 너무 중요했던 것이다. 에베소는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체험했던 전도운동 중 핵심적으로 펼쳤던 현장으로서, 바울의 전도운동 시스템을 메시지가 집대성된 곳이고, 세계를 복음화할 제자, 신학생들을 2년 동안 집중해서 훈련시켰던 현장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겠는가? 오늘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했던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는 진정된 축복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알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 또한 든든해질 것이다.

본론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세 전에 선택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본질이 같으시다. 동일 본질이다. 이런 말들이 그냥 전달된 게 아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또 수차례의 공의회와 수백 년 동안의 논의를 통해서 정립된 것이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쉽게 정리하게 되었다. 그 많은 연구와 목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리가 전달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도 진리를 깊이 알수록 영적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계속 훈련을 받는 것이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성경말씀을 직접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알아보려고 한다. 7~8가지의 중요한 영적 축복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다.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와 신실한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첫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도와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1)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6장처럼, 도저히 희망이 없는 존재였다. 사단에 의해 네 피뎀 시대에 빠졌고,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과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였다. 그러면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아니다. 나중에 술 먹고 취해서 드러눕고 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차이가 없다. (2) 그런데 왜 창세기 6:8에 뭐라고 하는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흥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실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

란다. 영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 집회에서 류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평강이 있는 곳에 평화는 거의 없다."
(1)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내 삶의 주변은 문제, 어려움이 너무 많다.
(2) 그러나 내 안에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같은, 문제, 경제, 무시당함, 경제적 어려움, 사역의 실패, 공부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된다.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평안, 믿음 안에 있는 평안,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한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다. 그 속에서 평평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빌립보서에는 감사, 평화, 기쁨의 내용이 가득하다. 이러한 평강, 은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참된 평강,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란다.

3.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어떤 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곤 이야기를 하더라. 무슨 인단이 또 나타나 하더니,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영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었다.
(1) 영세 전에 우리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2) 우리가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3)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어떤 분은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시간, 공간, 물질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시간, 공간, 모든 물질을 초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모순인 것 같지만 맞는 말이다.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틀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았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모르셨다 하는 것을 부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결국 믿음이다. 하나님이 다 아셨을 것이다. 아니면 모르셨을 것이다 하는 것은 둘 다 믿음의 영역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괜찮다는 것이다. 부인이 너무 잘 믿으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자기는 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라고. (웃음) 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란다. 류목사님, 최목사님, 정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야 한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나라도, 이 교회도, 결국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나를 위해서 세워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자구의 중심이라 하면 그게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천문대에 갔더니, 아무 표시도 없는데 자기가 중심이라고 해 버린 것이 있다. 착각이 아니다.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순간 그게 맞게 된다. 구약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 바란다.

4.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 주셨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이다. 허물이 무엇인가?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인데, 그중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영세 전에 아시고 대책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을 당하셨다. 이변에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어린양을 잡아서 대접하더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먹으면서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 (웃음)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구약의 기록에도 양념 없이 구워서 먹는 것이 너무 맛있었다고 한다. 여러분도 팀 짜서 가서 꼭 드시기 바란다. (웃음) 최고의 여행은 선교 현장에 가는 여행이다. 선교사님이 수십 년 사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을 다 아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1)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살리셔서 모든 민족, 세계를 살리게 하시는 천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엡2:1).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2) 과거에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네피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엡2:2-3).
(3)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엡2:5),
(4)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이다(엡2:6).
(5)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다(엡2:8-9). 에베소서 2:8을 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축하한다. 거저 받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 수 있도록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오늘 보니까 식사당반이 모자라니까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알람이 왔다.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되어서 가 봤더니 여러 분이 오셔서 다 마치고 차를 드시고 있더라. 이게 교회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약간만 하나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교회의 모든 것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약간만 헌신하면 된다. 식판을 내실 때는 깨끗이 잔반을 정리해서 내시기 바란다.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말 한 마디라도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 에베소서는 전도자의 삶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온전하심같이 우리도 온전하도록 평평 도전해야 한다. 이것이 성화의 목표다.

5.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또 다른 복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2:12-13에,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라. 이제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다. 아데미라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을 오랫동안 섬겼다. 그 우상을 보면 수십 개의 젓가슴이 달려 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고린도가 섬기는 신은 아프로디테다. 앞으로 봐도 예쁘고 뒤태를 봐도 예쁘다고, (웃음) 미의 여신이었다. 그것을 섬겼다. 에베소는 아데미를 섬겼다. 그렇게 이방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

(2)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각한다.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기록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자기 것처럼 받는다. 그러면서 믿음 충만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도 까고 그런다. (웃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다. 줄도 같은 데 못 서고 밥도 같이 못 먹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담이 혈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신령한 축복이다.

6. 영적인 인도자를 만나게 되었다.

여섯 번째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인도자를 주셨다는 것이다.

(1) 에베소 교회에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울을 보내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디모데, 아볼로 같은 영적 선생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목목사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게 바란다. 최목사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정목사님 만난 것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게 바란다. (웃음) 강목사님, 이목사님, 김목사님 만난 것도 축복이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만난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게 바란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구역장, 다락방 사역자, 지교회 사역자, 믿음의 부모님, 다 영적 지도자다.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 우리 후대가 계속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 영안을 열어야 한다. 여러분을 위한 응답인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발로 차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차하게 변명까지 해야 했던 것이다. 에베소서 3:7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너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여기 온 것이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여러분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다. 4월 말에 캠프를 할 때도,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교회 안의 모든 일, 전도사역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다 보이게 되고 완벽하게 응답받게 된다. 그게 영적 서밋이다.

7.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다. 에베소서는 성경 중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된 책이다.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며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에베소서 4:11-12을 보면, 이게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다양한 역할을 주셨다. 그래서 몸에 비유한 것이다.

(1) 예수님은 머시시고, 우리는 전부 그의 몸의 일부분이다. 성가대, 구역, 모든 것이 다 교회의 귀중한 몸의 일부분이다.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담임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한다. “저 이제 봉사 안 하려고요. 10년 동안 강대상을 뒀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요.”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고 한다. “제가 10년 반주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요.” 또 다른 사람이, “제가 식당 봉사를 10년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제가 회계를 10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처음부터 다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사로, 무엇으로, 다 봉사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우면서 함께 몸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2)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붙들어주고 도와줘라. 헌신 못 하는 사람을 보고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기적인 사람들이 많다.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가 되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사역을 함께 펼쳐가는 것이 교회다.

8.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준을 알게 되었다.

여덟 번째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을 알려주셨다는 것이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후반부 전체에 나오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것들이다.

(1) 그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4:22-24을 읽어보자.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 교회 다니기 전의 모습, 복음 깨닫기 전의 모습은 네피람의 모습이었다, 육신의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모습이었던.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는 영혼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서 삶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다.

(2) 에베소서 4:26-6:18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정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인턴십을 해야 할 내용이고, 우리 후대를 기쁘게 하듯, 문화서밋으로 만들어야 할 구체적인 목표이며 실천 내용이다.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연조 같은 시간표를 충분히 참고하면서 해야 하겠다.

① 에베소서 4:25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 분이 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어떤 부부를 만났다. 그분이 수첩에 글을 썼는데 한문을 너무 잘 썼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부가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좀 잘못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거짓을 버리고 했다. 왜냐 사단이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진리와 참은 주님께 가까운 것이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은 사단에게 가까워지는 것이다. 아기가 거짓말을 하면 부모님이 꾸짖지 않는가. 청소년 때는 그럴 때가 참 많다. 연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배

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거짓말을 한다. 그때 진실하고 정직해야 사단의 유희와 욕망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지도자로 지랄 수 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이상한 것까지도 숨기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거짓말은 고쳐야 된다. 선진국이 될수록 사회가 정직해진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에 거짓된 부분이 많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② 에베소서 4:26-27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문제가 생기고 화가 나고 하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 오래 품으면 안 된다. 0.1초 사이에 복음으로 바뀌어 버린다. 주께 모두 맡겨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다. 내가 기분나빴던 것, 문제 생겼던 것, 화날 일이 생긴 것, 참지 못할 일이 생긴 것도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면 0.1초 사이에 넘어갈 수 있다.

③ 에베소서 4:28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의 부모의 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가족의 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것도 도둑질이 된다. 나의 것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만이 여러분의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④ 에베소서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굉장히 소중하다. 군대를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가. 그런데 나와 친한 친구들은 욕을 하지 않았다. 왜 안 하는가 보니까, 나처럼 어린 시절부터 욕을 안 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었다. 바야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더라. 그런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⑤ 에베소서 4:31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식당 같은 데서 너무 떠들지 말아야 한다. 9가지 포인트가 꼭 필요하다. 특히 여성동지들은 참고하라. (웃음) 그렇게 떠들다가 갑자기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나?

⑥ 에베소서 5:3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상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다. 에베소서 5:8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⑦ 에베소서 5:15-16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것이 된다. 1년, 한 달, 금방 지나간다. 가능하면 선용해야 한다.

⑧ 에베소서 5:18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가장 시간 낭비하는 길이다. 술 취하고 도박하는 것이다. 나는 중독을 전공했다. 그것 때문에 10년, 20년을 날린다. 그 시간동안 준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많은 영화를 누릴 텐데 말이다. 그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캠프들이 너무 중요한 10대, 20대, 30대를 선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⑨ 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에베소서 5:22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의 목에 이 말씀을 걸어주면 좋겠다. (웃음) 그러나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제일 어려운 것이 순종인데, 에베소서 6:1-3에,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⑩ 에베소서 6:5-6에는, “종들이여,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하는 수준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마라. 에베소서 6:9에, “상전들이여,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사장님들은 협박하고 위협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결론 : 세상 속에서 승리할 방법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세 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지금도 사단이 쉴 새 없이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1)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하라. 머리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는 상처 대신 의의 흉배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공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진리로 든든히 허리를 매고, 현장을 뛰어나가는 복음의 신발이 있어야 한다. 이 무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한다.

(2) 627지 전도자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시간표를 찾고 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이 627가지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씩 실천해나가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3) 당시 에베소교회가 두런노 서원에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전 성도가 하나되어 제1, 2, 3 RUTC의 응답을 받도록 원니스되어서 도전해야 한다. 제1 RUTC는 함께 모여서 훈련을 받는 것이고, 제2 RUTC는 현장에 문화센터를 세워서 파고드는 것이며, 제3 RUTC는 그렇게 파고든 현장에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니스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란다. 이때 전 세계에서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소중한 일에 소중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하시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전체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붙잡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바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237개국, 모든 족속, 모든 나라를 살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고국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